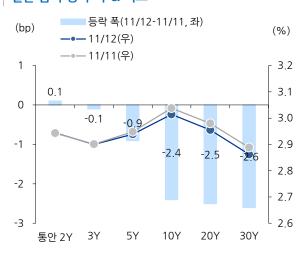
# **Eugene's FICC Update**





Fixed Income (단위: %,bp, 팀)							
		11/12일	1D	1W	YTD		
국내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900%	-0.1	-1.8	-25.4		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014%	-2.4	-5.9	-16.9		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11.4	13.7	15.5	2.9		
	3년 국채 선물(KTB)	105.94	0.0	5.0	52		
	10년 국채선물(LKTB)	116.92	12.0	50.0	142		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342%	8.7	17.9	9.2		
	미국채 10년물	4.428%	12.3	14.2	54.9		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8.6	5.1	12.3	-37.1		
	독일국채 10년물	2.362%	3.9	-6.4	35.8		
	호주국채 10년물	4.563%	-1.7	-0.3	60.8		

## 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## 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# 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강세 마감.
- 전일 미 채권시장 휴장인만큼 유럽권 금리에 연동되며 강세 출발. 그리스 중앙은행 총재, 1년 내 ECB가 정책 금리를 100bp 이상 인하 가능함을 시사
- 이날 금리 하단은 제한됨. 아시아장 중 미국채 금리, 레 드스윕 및 CPI 경계로 상승한 영향. 10월 가계부채 증가 규모 확대, 1,400원을 상회한 원달러 환율 등은 한은의 금융안정 부담을 가중시킴

#### 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##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. 트럼프 트레이드 지속
- 트럼프 2기 행정부 요직 중 미 우선주의 성향 인물들이 배치되어감에 따라 미국채 금리 상승. 이민자 감소, 무역전쟁이 야기할 인플레 재점화 불안이 시장을 지배
- 카시카리 총재, 12월 추가 인하 여부에 향후 인플레 지 표가 중시됨을 언급
- 금일 미국 10월 CPI, 유로존 9월 산업생산, 한국 10월 수출입 물가 동 발표 예정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

FX 8	FX & Commodity					
		11/12일	1D	1W	YTD	
횐율	원/달러	1,403.50	0.6%	1.8%	9.0%	
	달러지수	105.94	0.4%	2.4%	4.6%	
	달러/유로	1.062	-0.3%	-2.8%	-3.8%	
	위안/달러(역외)	7.24	0.2%	1.9%	1.6%	
	엔/달러	154.56	0.6%	2.0%	9.7%	
	달러/파운드	1,275	-0.9%	-2.2%	0.2%	
	헤알/달러	5.76	0.1%	0.3%	18.7%	
상품	WTI 근월물(\$)	68.12	0.1%	-5.4%	-4.9%	
	금 현물(\$)	2,599.77	-0.9%	-5.2%	26.0%	
	구리 3개월물(\$)	9,142.00	-2.0%	-6.1%	6.8%	

## 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동향



#### 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# 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+8.80원 상승한 1,403.50원에 마감. 종가 기준 2022년 11/4일 이후 최고치.
- 간밤 공화당의 레드 스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 강 세 흐름이 계속됨. 달러-원 1,399.10원에 개장 후 1,400원선 진입.
- 장 막판까지 1,400원 선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으나, 종 료 직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,400원대에서 마감. 아 시아 장 중에도 유로화 및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는 등 트럼프 트레이드가 여전히 외환시장을 지배.

### 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



####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오늘도 트럼프 트레이드 속에 상승.
-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인선이 점차 발표되면서 미국채 금리 상승, 달러 강세 베팅이 지속. 국토안보장관으로는 불법이민자 대량 추방을 주장하는 톰 호먼이, 국무장관 으로는 대표적인 대중 매파인 루비오 상원의원이 발탁.
- 반면 독일은 보호주의 강화와 내부 조기 총선에 따른 정치적 혼란 속 유로화 약세가 점점 가팔라지는 중.
-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예상을 웃돌면 12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. 카시카리 총재는 올해 투표권이 없음.